

21세기 건강 증진 심포지엄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 창립 35주년 기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21세기 건강 증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11월 5일(금) 서교호텔 별관에서 있을 이 심포지엄에는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권이혁 전 장관, 한상태 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등을 비롯해 국내 건강 증진 관계 인사 2백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의 국민 건강 증진을 위

한 정부의 정책, 학교 및 지역 보건 관리와 보건 교육 방안에 관한 논의(제 1부)와 더불어, 운동·스트레스·영양 등 건강증진 활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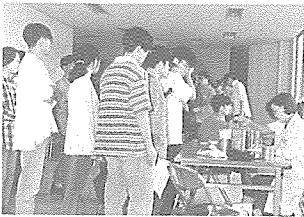
실천 방향에 대한 토의(제 2부)도 있을 예정이다.

심포지엄 일정과 발표 주제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심포지엄 일정〉		
〈기념식〉		
10:30~11:00	기념식 <유공자 표창, 기념사(임한중 한국건강관리협회장), 치사(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축사(권이혁 전 장관, 한상태 박사)>	
11:00~11:40	건협 35주년의 발자취 조계현(한국건강관리협회 겸진국장)	
〈심포지엄〉		
- 제 1부 -		
13:00~13:30	21세기 국민 건강 증진 정책 방향 <좌장 : 임한중(한국건강관리협회장)>	
13:30~14:00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오대규(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
14:00~14:30	학교 및 지역 보건관리	박현아(홍익대 학교보건소장)
14:30~15:00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김공현(인제대 교수)
- 제 2부 -		
15:00~15:30	21세기 국민의 건강증진 활동 방향 <좌장 : 김상인(대한적십자사 혈액연구원장)>	
15:30~16:00	운동과 건강증진	조비룡(서울대 교수)
16:00~16:30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홍명호(고려대 교수)
16:30~17:00	영양과 건강증진	강계현(상계 백병원 교수)

◀36

대전·충남지부, KAIST 재학생 건강검진·건강실태 분석 자료 발간



대전·충남지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의 건강검진과 건강 실태 분석 자료를 책자로 발간했다.

지난 95년부터 매년 우리 나라 과학기술 인재의 산실인 KAIST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온 대전·충남지부에서는 KAIST 재학생의 건강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 건강증진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96~'98년(3개년간)의 검

사 결과와 재학생들의 건강실문 조사를 토대로 하여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

한편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재학생(학사·석사·박사과정·외국인 학생 등) 4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간기능·소변·혈액 검사 등 총 48종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인천지부, 의료 보호 대상자 대상 무료 암 검진 사업 실시

인천지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시내 의료 보호 대상자 중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무료 암 검진을 실시했다.

이 암 검진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의료 혜택이 적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해, 암을 조기 발견·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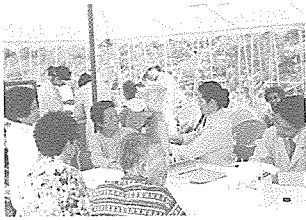
이번 암 검진에서 남자는 위암·간기능·간염 검사를, 여자는 유방암·자궁암·간기능·간염 검사 등을 받았다.

부산지부, 거제 유림타운 현장 근로자 보건교육



부산지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거제 유림타운 아파트 현장 근로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

전북지부, KBS 전주방송 총국 개국 61주년 기념 무료 봉사 참여



전북지부는 지난 9월 29일, KBS 전주방송총국 개국 61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무료 봉사 활동에 참가해 농어촌 오지마을 지역 주민 대상의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순창군 동계면 내룡리 등 4개 부락에서 있었던 이 무료 검진에서 소변·혈압·빈혈·간기능·혈당·심전도 등에 대한 검진이 실시되었다.

에이즈 예방협, 에이즈 예방 심포지엄

대한에이즈예방협회(회장:정광모)는 지난 10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이즈 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HIV 감염인의 복지와 컴퓨터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에이즈 예방협회·에이즈퇴치연맹·외국 등의 컴퓨터 운영 현황, 에이즈 환자의 호스피스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주제 발표와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패널 토의가 있었다.

대구·울산 지부, 지난 9월 순회이동보건교육 성료

대구지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일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건협 서울지부 김장석 검진부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칭찬



서울지부 김장석 검진부장이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대민 친절 봉사의 자세로 일한데 대한 칭찬을 받았다.

김부장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지부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내원자에게 효과적인 건강검진 방법과 건강관리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등 건강상담과 안내에

일환인 '99. 순회 이동보건교육을 두류공원 주차장을 비롯한 대구 시내 주요 지역에서 실시했다.

대구지부는 이번 교육에서 생활습관병 및 각종 성인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보건교육과 비디오 상영, 무료 검진 및 건강상담, 건강 관련 책자를 배부하는 등 다채로운 보건교육 행사를 가졌다.

한편 울산지부도 지난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울산시내 주요 지역에서 시민 대상의 순회 이동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심전도·혈압·비만도·혈당·청력 등의 무료 검사와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광주·전남지부, 장애인 무료 검진 실시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월 29일, 전남 장애인 복지관 주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김부장의 이같은 친절 자세를 접하고 감동을 받은 한 내원자가 건협과 보건복지부 인터넷에 이 사실을 글로 올림으로써 알려지게 된 것.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의 '장관과의 대화'의 방에서 김부장의 친절 사례를 접하고, 대민 업무를 보는 곳에서는 친절한 자세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김장석 부장을 칭찬하는 전화를 직접 걸어 왔다.

있었던 장애인 무료 검진을 나주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했다.

인천지부, 전국 체전·건협 창립 35주년 기념무료검진 등

인천지부는 제 80회 전국 체전 및 창립 3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10월 1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인천시민 대상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 종목은 체성분 분석, 혈액형, 소변 및 기초 검사 등이다.

인천지부는 또 무료검진 시 행운권 행사에 참여한 사람 중 30명을 추첨해 종합검진 및 부분 검진권을 증정하기로 했다. 추첨은 11월 6일 12시에 건협 인천지부 1층 상담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032-884-7131~2(인천시 남구 송의동 로타리 서울은행 옆)로 하면 된다.

한편 인천지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인천기계공고 운동장에서 열린 전국 체전 럭비 경기에 이영선 간호사를 응급요원으로 파견했다.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소외 계층 대상 사랑의 진료 봉사 참여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9월 17일 대전광역시, 대한간호협회 대전광역시 간호사회와 합동으로 실직자와 노숙자 등 소외 계층을 대

10월 순회이동보건교육, 전북 지역에서 성황리 진행

10월 순회이동보건교육이 지난 10월 6일부터 22일까지 전북 관내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순회이동보건교육은 순창군, 전주시를 비롯해 8개 시군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무료 건강검진, 건강 관련 자료 배부 등을 실시해 시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북지부, 중·고교생 대상 에이즈 예방 교육 실시



전북지부는 지난 10월, 전주 송천중을 비롯한 관내 8개 중·고등학교생 3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

상으로 한 사랑의 진료 봉사에 무료 건강검진 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날 검진에서는 대전역 광장에서 실직 노숙자 116명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혈액질 환

(CBC 5종), 혈액형 검사 등을 실시해 경제 불황으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해 주었다.

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지부, 시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 참가

송정숙 과장, 여자 일반부 8위



인천지부가 지난 10월 2일에 있었던 인천시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에 참가했다. 16년만에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 80회 전국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인천 시민 8천여 명이 참가했다.

건협 인천 지부에서는 율희동과장 등 10명의 직원이 참가해 인천 종합경기장에서 인천 시청 사이 7km를 완주했으며, 인천지부 송정숙 과장이 여자 일반부 8위로 입상하기도 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대와 활용방안 토론회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대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 주최로 지난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신동근 건강연대 정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회 이성재 국회의원이 참여해 격려사를 하였으며, 김창엽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고, 오대규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 김승보 경실련 정책실장을 비롯한 6명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김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민간조직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 사회복지시설 수용원생 의료봉사

전북지부는 지난 10월 20일, '99년 전주시 자원 봉사 대축제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자림원'을 방문하여 원생 17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상담 및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자림원은 정신 지체 장애인 수용 보호 시설로서, 전북지부에서는 지난 '96년도부터 매년 무료 검진을 실시해 오고 있다.

원생들은 혈액·비만도·소변·혈액·간기능·간염·혈당·고지혈·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며, 간기능 유소견자는 2차 재정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